

## ‘광주 야경’ 유흥업소 간판만 반짝 반짝



광주의 대표 상업지역인 상무지구 일대 야간경관이 유흥업소와 모텔에서 내뿜는 네온사인 불빛에 뒤덮여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빛바랜 빛고을·LED도시 ... 광산업·에너지밸리 무색 ‘세계 빛의 해’ 문화도시 걸맞게 야간경관 조성 나서야

최근 출장차 광주를 방문했다가 상무지구 내 고층 건물 뷔페에서 저녁식사를 한 안성재(42·서울)씨는 “빛고을 광주의 명성에 맞는 멋진 야간경관(야경)을 기대했다가 모텔과 유흥업소의 간판 불빛만 영커있는 야경을 보고 할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광주를 빛고을, LED도시로 부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아시아문화전당 인근이자 광주의 최대 변화기로 꼽히는 금남·충장로 일대 야경도 주변 경관 조성은커녕 광주의 부끄러운 민낯만 노출하는 등 부작용만 내고 있다. 금남로 인근 고층 건물에서 근무하는 회

사원 박남길(46)씨는 “14층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은 낡고 방치된 건물의 옥상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라면서 “인구 150만 대도시의 야경 수준치고는 한심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국제도시를 자칭하는 ‘빛고을’ 광주시의 야간경관(야경)을 도시의 격에 맞게 재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과 부산, 제주 등 국제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타지역에서는 야경조성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광산업, 에너지밸리 등 빛 특화도시인데도 에너지 절약 등을 이유로 야경조성에 손을 놓고 있어서다.

**?** 세계 빛의 해  
UN은 올해가 이슬람 학자 이븐 알하이삼이 빛을 연구해 ‘광학의 서(書)’를 출간한지 1000년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을 ‘세계 빛의 해’로 정했다.

특히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빛의 해’로 전국적으로 빛을 주제로 한 대형학술대회와 기념행사 등이 열리고 있지만, 정작 ‘빛고을’에서선 특별한 행사조차 없는 상황으로 ‘빛고을’이란 별칭 자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3년 야간경관조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없애는 대신 도시경관 조례 내에 ‘야간경관 조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만 넣었다. 시는 에너지 절약 중심의 에너지 관리법, 에너지 사용 제한 권고 등에 따른 조치라며, 야경사업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인천시, 부산시 등 대부분의 도시들은 야간경관 개선 사업에 적극적이다. LED저감장치를 활용하는 등 일정 범위 내에서 야경 조성이 가능토록 돼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리법’ 등을 활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1998년부터 주요 건축물과 문

화재에 장식 조명을 꾸며놓고 있으며, 인천시도 대형 건축물에 야간조명을 설치도록 하는 등의 조례안을 운영중이다. 부산시는 부산·광안대교, 문화재 등을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해 야간 관광 명소로 만들어 냈다.

파리 샹젤리제, 뉴욕 브로드웨이 등 국제도시들도 야간경관을 빼놓고선 그 매력을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야경은 도시의 명성과 직결되는 요소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서울시 관계자도 “도시조명은 비용은 적게 들면서 도시의 절반을 새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매력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도 광주 U대회에 대비, 조만간 야간경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다만 야간경관 예산이 없는 만큼 대학과 호텔 등 민간시설물 소유자에게 야경 조성을 부탁하는 등의 조치만 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6일 ‘세계 빛의 해 지원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1일에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세계 빛의 해 선포식 및 기념 세미나가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금호, 금호고속 4천억에 다시 산다 박삼구 회장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 그룹 재건 본격화 나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고속을 되 사기로 결정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9일 금호고속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금호고속은 3년 만에 금호아시아나의 품에 다시 안길 전망이다.

9일 금호아시아나그룹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호산업은 금호고속 대주주인 IBK투자증권-케이스톤 파트너스(이하 IBK 펀드)에 공문을 보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문엔 금호고속 지분 100%를 인수하되 금호고속이 보유한 금호리조트 지분 48.8%는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매수에 나선 금호그룹 계열사는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터미널, 금호고속 우리사주조합 등 4곳이다.

금호리조트의 경우 대주주가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지분 51.2%를 보유중이다. 인수하지 않더라도 경영권 유지에는 지장이 없다. IBK 펀드가 보유한 금호리조트 지분 48.8%는 금액으로 환산시 800억원으로 추정

된다. 앞서 IBK 펀드가 금호아시아나에 금호고속 매각가로 48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비추보면 결국 금호아시아나는 금호고속을 4000억원에 사겠다고 입장을 밝힌 셈이다.

IBK 펀드 측은 금호아시아나의 제안에 대해 해당 거래를 진행해도 되는지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아시아나가 금호리조트의 지분을 포기했지만 IBK 펀드의 제시액에 근접한 만큼,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IBK 펀드는 앞서 지난달 1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금호고속 매각금액을 제안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문 접수 뒤 2주간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검토해 왔다. 박 회장은 그동안 금호고속에 대한 강력한 인수 의지를 밝혀왔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인수대금을 IBK 펀드에 건네야 한다. 투자업계에서는 계열사 등을 통해 자금을 동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난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IBK 펀드는 공개경쟁을 통해 금호고속을 매각할 계획이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 춘삼월 ‘한파주의보’

광주 오늘 아침 최저 영하 5도... 서해안 눈발

### 내일 낮부터 차츰 풀릴 듯

봄같은 광주와 전남지역에 찬바람이 불면서 3월에 이례적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광주 기상청은 9일 오후 6시를 기해 광주와 고흥·곡성·구례·광양·나주·보성·담양·순천·여수·영광·장성·함평·회선 등 14개 시·군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광주·전남지역에 찾아온 3월달 한파주의보는 광주와 전남 10개 시·군의 아침 최저기온 영상 10.9도에서 다음날 영하 1.2도로 떨어진 지난 2009년 3월 13일 이후 6년만이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가 영상 5.8도, 전남지역은 영상 3.2도~7.4도로 비교적 포근한 기온을 보였다.

하지만, 10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전남은 아침 기온이 영하 6도~영하 2도로 10도 이상 기온차를 보일 것으로, 낮 최고기온도 1~5도에 머물 것이다. 또 이날 새벽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엔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낮 한때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적설량)은 5mm(1cm) 미만.

이번 추위는 오는 11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차츰 풀리기 시작해 주말엔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5km 상공에 영하 35도 이하의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장 겸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 출발하오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요 학력 및 경력 ◇

|                     |                         |                       |
|---------------------|-------------------------|-----------------------|
| -나주 출생, 목포산업초-광주광현초 | -제37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27기  | -장성 군법원 판사, 영광 군법원 판사 |
| -광주우진중, 광주고(33회)    | -미국 UC Berkeley대학교 방문과정 | -영광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서울대 경제학과(84학번)     | -광주지방법원 판사              |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서울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 겸 부장판사 |
| -한양대 대학원(법학 박사)     | -특허법원 판사                |                       |

변호사 광민섭 올림

※ 소속변호사 : 류민욱 변호사 · 전남대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42기 · 법무법인 지산 근무

■ 업무개시: 2015. 2. 23.(월) ■ 개업장소: 광주 동구 지원로 70 동산빌딩 4층  
 ■ 대표전화: 062)228-2266 ■ 팩 스: 062)228-2267 ■ 개업소연: 2015. 3. 27.(금) 11:00~  
 ■ 회원은 정중히 사양하며, 기부미화현으로 보내주시면 모자란 위로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 (기부미 후원번호 1577-0333)

광주 5개 자치구 191곳  
아동 안전지도 살펴보니 ▶ 6면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 HERA

나르시스에서 피어나는 무한한 생명력  
헤라 시그니아 크림

고귀하고 감인한 아름다움의 상징 나르시스-그 절정의 생명력을 피부에 선사하는 안티에이징의 정수, 헤라 시그니아 크림  
3백만 나르시스 스템셀이 피부에서 피어나는 순간  
거울속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유명역사학이나 이모크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료유료부담) www.hera.co.kr